

표준명

보건의료정보 — 개인 건강 기록 응용 및 진료 정보 교류를 위한 개인 소유 건강 기록
저장소

표준번호

KS X ISOTR20055



개발기관명/분야

한국보건의료정보원/정보서비스

TC/SC

ISO/TC 215
(Health informatics)



성격: 전달표준

종류: 부합화 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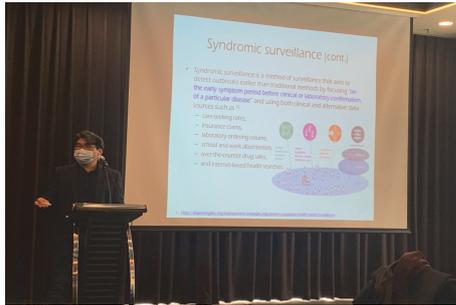
개발시작일: 2020. 02. 01

최종고시일: 2021. 06. 14



01 표준개발 배경

- 정부는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마이헬스웨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('21.2.24. 보건복지부 보도자료), 흠어진 건강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등 개인 소유 건강기록 저장소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.
- 이에, 개인 소유 건강기록 저장소를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의하기 위해 개발 추진하였다.



02 정책적 부합성

관련 정책 KEYWORD : 마이 헬스웨이(의료분야 마이데이터)

- 정부는 '마이 헬스웨이(의료분야 마이데이터) 도입 방안'과 흠어진 건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'나의건강기록 앱' 출시를 발표하였다('21.2.24.).

03 표준 범위 및 내용

- 개인 소유 건강기록 저장소(Person-owned Document Repository, 이하 “PoR”이라 한다.)에 대한 개념을 기술하고,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PoR을 제안하고, 기존 기술 및 프로젝트에서 PoR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한다.
- 하지만 HL7 CDA와 같은 문서 형식이나 통신 프로토콜,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전략에 대한 세부 사항, 그리고 기타 규정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.

04 성과의 우수성

- 개인 중심 건강정보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수 있는 표준이다.

05

기대효과

관련산업 : PHR 관련 사업

표준활용 : 개인건강기기(PHD, Personal Health Device) 정보의 교환, 의료 정보의 교환, IoT 기기 정보의 교환 등 세 가지 분야에 활용 가능. 국내 PHR 사업자는 헤셀, 오픈잇 등 12개 기업 및 기관이 존재

- 개인건강기기 분야는 IEEE 11073에서 먼저 표준으로 제정된 것이 ISO와 IEEE 사이의 표준화 일치(Standard Harmonization)에 따라 ISO 국제표준으로 배포되고 있다.

- PHR 활용과 관련한 민간서비스는 일반인이나 환자를 유저로 하는 건강관리, 질병관리 앱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*가 증가하는 추세로,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 관련 데이터를 측정하고 앱상에서 기록 및 열람하는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.

* 국내 PHR 사업자 : 헤셀, 오픈잇 등 12개 기업 및 기관이 존재

- 국내·외 IT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기업(애플, 삼성 등)은 자신의 디지털기기와 플랫폼을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주도권 선점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, PHR 분야도 동 표준의 활용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.

-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, 의료정보, 의료지식 등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하고, 올바른 건강관리 및 치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